

A Daily Bread

Date: 29 Av 5786 (August 12, 2026)

Torah Portion: Shoftim

Topic: 왕과 슈므엘(사무엘), 제 1 부

신명기 17 장 14 절에는 "네가... 그 땅에 이르러... '내 주위의 모든 민족들처럼 내 위에 왕을세우겠노라'고 말할 때에"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람반(Ramban)은 여기서 "말할 때에"라는 표현을 왕정 제도에 관한 토라의 명령 중 일부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소유하고 정착한 후에는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왕정 제도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정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왕의 성품과 책임을 세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토라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고(람반의 견해에는 '명령'하고) 있다면, 훗날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왜 불쾌 했을까요? 장로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세우소서"(사무엘상 8:5). 사무엘이 이 문제를 여호와(YHWH)께 아뢰었을 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백성이 네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사무엘상 8:7). 토라에 이미 왕을 세우는 규정이 있었다면, 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당신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난제는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왕정 제도 그 자체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정 제도의 차이를 분별하여 구별함으로써 그 해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는 여호와의 권위를 대체하는 독립적이거나 세속적인 왕을 유념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신도 여호와 명하신 토라의 권위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토라를 필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신명기 17:18-19) 합니다. 그의 마음이 형제들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며, 여호와의 계명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왕은 토라(신성한 법도; 가르침)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토라 아래에 서서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단순히 백성이 왕을 요구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더 깊은 속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방의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이 왕을 두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와 똑같아지는 것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약이 남달랐기에 그들의 왕 또한 달라야 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와 그분의 토라(신성한 가르침)라는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다스려야 했으며,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백성에게 상기시켜야 했고 그 다른 어느 왕들의 복속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분노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에게 "당신은 늙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연대기에 따르면 사무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뜻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열방에 희석되지 않는

자신이 대변하는 가치가, 세속화되어진 그들의 이념에 비하여 '낡은 것'이 되었다는 뜻으로, 즉 자신의 가르침과 이상, 그리고 지도 방식이지나간 시대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를 슬프게 한 것은 단지 나이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백성이 그가 옹호하던 여호와 가르침이신 토라를 근거한 영적 원칙들을, 백성들이 마치 당시의 시대에 구식이며 뒤떨어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한 민족적인 국가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가르침들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백성이 원했던 왕의 권위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사무엘은 대중의 여론에 따라 좌나 우로 치우쳐 다스리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곳곳이 재판했습니다. 반면 인간성에 의하여 지배하는 왕은 웬지 정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자신들의 뜻대로 압력을 가하거나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치자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신성한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대신, 각 인간의 기대와 비위를 맞춰 형성할 수 있는 왕이라는 상대적 권위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사(Judge) 인 자신을, 만약 사람이 선택한 왕이 대신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영적 지도자로서 연약한 백성을 여호와로 나아가는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여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문제는 사무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열방의 넓은 길을 내심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요구는 안일한 영에 미혹되어, 여호와의 절대적인 생명과 복인 주권 아래 직접 살아가려는 의지가 약해졌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살롬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세아 8:4